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11년 7월 4일
음력 6월 4일
월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지성(이기식)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총기 40년 (불기 2555년) 제140호

종령법어

총기40년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회향 '호국안민기원대법회'

종령 효 강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을 회향하면서 개최된 '호국 안민기원 대법회'를 맞이하여 승단의 스승님들과 각 사원의 교도 보살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호국가불공법회를 원만히 봉행하게 된 것은 승단의 스승님과 교도 보살님들의 용맹정진과 선업 공덕의 연유라고 생각합니다.

종조님께서 제정하신 '49일 진호국가불공'은 '나라를 위한 불공'으로서, 공공서원과 함께 수호국계주 진언으로 봉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하반기 49일 불공은 '선망부모와 조상영식의 천도'를 위한 불공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선대의 조상님들은 자식과 후손들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죄를 지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고로, 무지한 우리들은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죄업을 씻어드리는 일에 부족함이 많고 후손으로서 예를 갖추지 못한 죄업은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49일 불공을 올리는 것은 자식 된 도리로서 선망부모와 조상의 영식을 천도하기 위한 불공임은 물론이오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도록 선연(善緣)을 베푸는 자리가 방생법회의 법석(法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회를 통해 선망부모와 선대 조상님의 일체 죄업을 말끔히 씻어드리고, 현생의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 허물을 스스로 참회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지불식간에 지어온 '살생죄업'은 깊고도 깊고, 넓고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죄업과 악과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길은 자기참회와 더불어 남을 위해 사는 것이며, 그 제일의 실천법이 방생에 있습니다.

그 방생은 어류방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방생에서 마음의 방생, 일체 존재에 대한 방생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의 대립에서 벗어나고 반목과 질시로부터 서로 해탈케 하는 것, 그것 또한 방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하는 '호국안민기원대법회'에서 그 어느 해보다 더 환희심이 나고 더욱 깊은 법을 지닐 수 있도록 각자가 다짐하고 다짐하여야 합니다. 특히 진호국가의 호국불교는 신라 혜량 법사의 인왕백고좌도량 법회의 역사에서부터 신라 문무왕대의 명랑법사가 사천왕사를 짓고 풀로써 오방(五方)의 신상(神像)을 만들고 문두루비법으로 당나라의 50만 군사를 물리친 역사와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위한 법회와 정신은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의 호국방생법회 또한 그 역사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법회를 통해 나라를 위한 마음은 물론이오, 평소 올바른 신행생활을 영위해나가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에 보은하는 길입니다.

퇴전하여 흩어진 마음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굳건한 신심과 불퇴전의 용맹심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는 교령법신의 당체법문과 설법으로 화(化)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 합시다. 끝없는 용맹정진만이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호국대법회를 통해 더욱 좋은 인연을 짓고 선업(善業)을 닦으시기를 서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더욱 뜻깊은 한 해가 되고, 부처님 법 안에서 굳은 신심으로 생활해나갈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진호국가불공을 통하여 우리의 염원이자 희망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조국평화통일의 기운이 더욱 융창해질 것이며, 이러한 모든 바램이 기필코 성취되기를 지심으로 서원하는 바입니다.

법회에 동참하여 주신 승단의 스승님들과 교도 보살님께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과 가지력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하반기 49일 불공 7월 15일 회향

효강 종령, "올바른 신앙생활이 나라에 보우하는 길"

▲ 정각사 교도들이 하반기 49일 불공을 정진하고 있다.

불교총지종은 오는 7월 15일 본산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사원에서 스승과 교도들이 같이 자리하여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한다. 하반기 불공은 '나라를 위한 불공'인 진호국가 불공과 '선망부모와 조상영식의 천도' 불공을 병행하여 불공하였다.

효강 종령 예하는 회향 불공 법어에서 "진호국가 불공을 통하여 우리의 염원이자 희망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조국평화통일의 기운이 융창 해질 것"이라 했으며 선망부모에 대해서는 "이 불공이 선망부모와 선대 조상님의 일체 죄업을 말끔히 씻어드리고, 현생의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 허물을 스스로 참회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호국가불사(鎭護國家佛事)란 '외적의 침입이나 환란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불교의식'이다. 이 수법은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다. 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는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하여 1975년 진호국가불사 의궤와 「옴훔야호사」진언을 제정했다. 총기 20년(1991년) 당시 록정 종령에 의해 상반기 49일 불공은 '자녀 잘되기 서원불공' 하반기 49일 불공은 '현재 부모에 효순하고 선망부모의 해탈 서원불공'이라 지정했다.

회향일은 7월 15일이며 우란분절이기도 하다. 우란분절은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하여 부처님과 여러 대중이 다같이 공양을 올리고 불공을 드리는 날이다.

일반 타 종단에서는 음력으로 맞이하지만, 총지종은 양력으로 정해져 특별히 이날을 해탈절(解脫節)이라 한다. 영원한 열반에 들어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남을 의미하고 있다.

하반기 49일 불공의 회향으로 연계되는 호국안민기원 대법회는 국가의 안녕과 호국선영에 대한 추모 법회이다. 또한 부지불식간에 지어온 죄업과 악과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자기참회의 실천법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7월 16일 호국안민기원 대법회는 부산·경남 교구 소속 사원은 경남 하동에서 법회를 갖는다. 서울·경인교구의 총지사는 동해, 밀인사는 부여에서 법회를 봉행하며 대구·경북 교구의 수인사는 여수 이순신 장군광장를 찾는다. 충청·전라교구 소속사원과 각사원들은 사원별로 현지에서 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종한 기자〉

지성 통리원장, 교육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중앙교육원 종단 활성화 일환

▲ 효강 종령 예하는 위촉된 교육위원들에게 종단발전을 위할 것을 말했다.

총지종이 밀교의 저변확대를 넓히고 스승 및 교도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높이고 알리기 위하여 교육위원들을 위촉하였다. 중앙교육원에서 6월 21일 효강 종령 예하와 지성 통리원장, 화령 중앙교육 원장이 참석하여 지성 통리원장이 교육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선정된 교육위원은 총무부장 인선정사, 밀교연구원 법경정사, 백월사주교 법우정사, 총지사 록경정사, 밀인사주교 원당정사, 흥국사주교 지정정사, 운천사주교 도현정사이다.

수여식에서 효강 종령 예하는 "밀교의 확실한 지식을 보다 넓게 알리고 종단의 교화 활성화에 수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이라 밝히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논문발표, 학술개최 등으로 발전하자."고 당부했다. 지성 통리원장은 "교육원장을 중심으로 종단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교육위원 토론에서는 가장 먼저 System을 구축하자는 의견을 같이했다. 교도부분, 사무부분, 스승부분으로 교육방향을 설정하여 교육의 구성과 체계를 의논하였다. 교도 불교교양대학의 부활, 밀교 교육 및 현대불교 교육에 맞는 시무교육, 현재보다 더 수준이 올라간 스승보수교육등의 방법론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조사 할 예정이다. 교도 상담, 설문지를 통한 조사(시간, 량, 내용등), 스승연륜에 따른 교육법등을 조사하여 현 체계에 맞는 교육 적용방법을 토론하였다. 특히 스승교육법에 대해서는 승급 및 인사에 반영될 의사가 있었다.

화령 중앙교육원장은 2차 위원회 소집때까지 교육방향의 설정(시간, 교육주제, 내용정리), 위원회의 정례화, 전문가 스피치 강의법등을 교육위원들에게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7월 22일 중앙교육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로운 종풍운동(宗風運動)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종조법설

"신 의"

자기의 신용을 위해서 남을 속이지 말며 자기와의 화합을 위하여 다른이에게 이간을 붙이지 말고 자기의 명예를 존중하거든 남을 비방하지 말라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호국안민기원 대법회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해탈로 이끌고 소외받는 이웃을 돕는 자리이타행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금번 법회에 무루 동참하시어 업장소멸과 소원성취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서울 · 경인교구]
◆ 일시 : 7월 16일
◆ 장소 : 각 사원별 봉행

[부산 · 경남교구]
◆ 일시 : 7월 16일
◆ 장소 : 경남 하동

[대구 · 경북교구/충청 · 전라교구]
◆ 일시 : 7월 16일
◆ 장소 : 각 사원별 봉행

불 교 총 지 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송 02)552-1082 //www.chongji.or.kr

동해중 총동창회 가족체육대회 개최

동창회 발전을 위한 행사 진행

▲ 가족체육대회를 맞아 지성 통리원장, 이진복 국회의원등 행사 관계자들이 의례를 하고 있다.

동해중학교 총동창회는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모교의 동창회 발전을 위한 행사로 거듭났다.

6월 26일 부산 금정체육공원내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가족체육대회는 동문, 동문가족, 은사, 현직선생님, 학부모회, 재학생등 300여명이 자리를 같이 했다.

동해중학교 이사장 지성정사는 격려사에서 "단합된 동문들의 모습에 박수를 전하며, 오늘 행사가 여법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진복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모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하나 된 뜻을 모으자"고 밝혔다. 바쁜 업무로 참석하지 못한 조현오 경찰청장의 축사를 대독한 동기회장은 "동해중 졸업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면서 "자긍심을 갖자"고 했다.

동해중이사 인선 정사, 장재계 교장, 탁상달 교감, 변현 동창회 사무국장이 배석했다. 이날 대회는 기수별 노래자랑, 스포츠댄스, 마술, 비보이, 섹스폰연주, 기타연주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하여 동문들의 단합과 웃음을 보였다. 동문들은 은사 선생님과 옛 추억의 학창 생활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동문 3기 자녀중 이슬기 설날백두장사가 아버지와 같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총동창회 사무국에서는 가을 등산대회를 준비하는 등 동해중의 명예심을 높이고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사를 열겠다고 했다.

인선 총무부장, 종단협 이사회 참석

한중일교류대회 11월에 낙산사 개최

▲ 총지종 총무부장 인선정사가 종단협 이사회의에서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2차 이사회에 지성 통리원장을 대행하여 총무부장 인선 정사가 참석했다.

6월 28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서 열린 이사회는 '불교언론위원회 위원장 위촉'의 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보고, 동일본대지진 위령제 보고, 제1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건이 있었다. '불교언론위원회'는 방송과 언론을 통한 올바른 불교문화 홍보와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협 산하 단체이다.

위원장에는 성대석 한국언론인협회 회장을 위촉하였다. 한중일교류대회는 11월 1일~3일까지 강원도 낙산사에서 "불교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개요와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다.

10월 29일 총지 기념합창문화제 연다

정통밀교 재가불자종단 위상 재정립

불교 총지종이 총기 40년을 맞이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2011・기념합창 문화제(가칭)가 10월 29일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하기로 확정지었다.

총지종 합창 문화재 추진 위원회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행사내용과 일자, 장소를 논의하여왔다.

위원회는 '소리로 하나된, 생활 불교의 실현'의 주제에서 불교 총지종을 가장 돋보이고, 보여주고 알릴 수 있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회의 했었다.

기획과 추진방향은 총지종의 위상을 아리고 교도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예술제로 잡았다. 또한 사부대중이 하나되는 화합과 어울림으로 신명나는 자리매김 하려고 한다.

이 날짜는 총지종이 주관하는 제5회 국제재가 불교지도자 대회에 맞추어 각국의 불교재가 지도자도 같이 동참하는 장으로 연결되어 진다. 지성 추진 위원장은 "문화제 행사는 한국불교내의 총지종단 위상 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며 스승과 교도가 화합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 싶다." 면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문화제를 만들어 노력의 댓가가 나오는 행사로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은 식전행사과 공식법회가 있다. 본행사는 총지종의 마니합창단, 만다라합창단, 개천사 합창단의 합창이 있다. 한국무용 다라니경 퍼포먼스의 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서울・경인 교구 신정회 임원단, 통리원장 간담회

▲ 지성 통리원장과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김은숙 회장이 향후 일정에 대하여 의논을 하였다. 9월에 있을 경로법회의 장소를 전북 변산반도와 강원 강릉지방이 논의 되었다. 통리원은 합창문화재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신정회는 대중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요청하였다. 이날 인선 총무부장, 시정 재무부장, 신정회 이인성 총무, 이연수 총무가 자리를 같이 했다.

지성 통리원장 BTN 이사회 참석

경영실적 보고와 '산사애' 법인 통과

지성 통리원장이 6월 24일 개최된 불교텔레비전 제73회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불교 TV 8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5월말까지의 경영실적 보고가 있었다. 부의안건에서는 구본일 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재의결 선임 결의하였다. 구 사장은 지난 이사회에서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 결의하였으나, 방송법에 따라 선임등기 하지 못했었다. 또한 불교텔레비젼의 자회사인 '산사애'를 유통법인 설립의 건으로 통과시켰다. '산사애'는 사찰특산물과 지역농산물을 인터넷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전문 쇼핑몰회사이다.

알림방

▶ 7월 4일 ~ 10일 : 7월 월초 불공
▶ 7월 15일 :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 7월 16일 : 호국안민법회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제2차 상임위원회가 각 종단 대표와 불교 총지종 총무부장 인선정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28일 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23일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광명사에서 열린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 위령 법요식"에서 종단협의회와 교류협의회에서 모금한 성금 10,000,000엔을 전달한 사항에 대한 결산보고 안건을 의결했다. 대지진 희생자 위령 법요식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표 40여명과 총지종 지성 통리원장이 참석 한 바 있다. 또한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제32차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개최 준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구체적인 진행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일 불교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는 이번 대회는 "종교간의 화합문제"를 주제로 한.일 불교를 대표하는 불교학자들과 중진 스님들이 연사로 나선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에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서경보 일붕존자 탄신 97주기 원적 15주기 추모 만등법회

일붕선교종은 지난 6월 10일 제주도 조천체육관에서 일붕 서경보스님 탄식97주기 및 원적 15주기 추모 만등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총지종 총무부장 인선정사, 서강 총무과장과 각 종단 대표등이 참석했다.

죽비소리

생사와 열반의 본성(本性)은 평등하다

나무가 처음에 생장할 때는
밤낮으로 쉬지 않는 것같이
지자(智者)가 즐겁게 수행하여
증장함도 또한 이와 같도다.

- 대승장엄보왕경 -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5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개천사	무명씨	6/23	10,000	기 로	상지화	6/20	10,000	법천사	원만원	6/20	10,000	실보사	이순옥	6/16	5,000	총지종	임동수	6/14	30,000
관성사	박길화	5/31	10,000	기 로	수증원	6/20	10,000	벽룡사	양정현	5/27	10,000	실보사	정법계	6/22	10,000	혜정사	오혜민	6/22	40,000
관성사	박현숙	5/26	10,000	기 로	총지화	6/20	10,000	벽룡사	양지현	5/27	10,000	실보사	조순애	6/14	100,000	화음사	송하나	6/20	20,000
관성사	황성녀	5/31	10,000	단음사	법연지	6/17	10,000	벽룡사	이종호	5/27	35,000	실보사	해 정	6/22	10,000	화음사	송호영	6/20	20,000
관음사	신막심	5/30	10,000	단음사	이숙현	5/31	10,000	삼밀사	원 송	5/26	10,000	실지사	박병성	6/15	1,000,000	흥국사	지 정	6/15	20,000
기 로	경관	6/13	10,000	단음사	천 공	6/7	4,000	삼밀사	인법계	5/26	10,000	실지사	송우섭	6/24	5,000		강순란	6/2	5,000
기 로	대관	6/20	10,000	덕화사	하순옥	6/8	5,000	선립사	수 정	6/13	10,000	실지사	정경자	5/27	5,000		기업은행	6/16	100,000
기 로	대도행	6/13	10,000	만보사	박선희	6/14	30,000	성화사	우담바라회	6/9	50,000	정각사	구정희	6/22	20,000		박말조	6/20	5,000
기 로	대자행	6/20	10,000	만보사	정덕순	6/2	10,000	수인사	김봉기	5/27	10,000	정각사	김문수	6/15	10,000		신 바	6/2	100,000
기 로	밀공정	6/20	10,000	밀인사	이채원	6/13	10,000	수인사	장영택	6/1	50,000	정각사	박동휘	6/20	10,000		이혜원	5/30	5,000
기 로	법수원	6/20	10,000	밀인사	이혜성	6/8	20,000	승천사	원 봉	6/15	10,000	정각사	이정선	6/13	5,000		최순전	6/2	20,000
기 로	법장화	6/20	10,000	밀인사	이희원	6/13	10,000	승천사	지선행	6/15	10,000	지인사	승효제	6/15	10,000				
기 로	법지원	6/20	10,000	밀인사	정정희	5/31	5,000	시법사	진여행	6/3	10,000	지인사	허성동	5/30	20,000				
기 로	불멸심	6/20	10,000	법천사	김정숙	6/24	5,000	시법사	환수원	6/15	10,000	지인사	허성동	6/23	20,000				
기 로	사홍화	6/20	10,000	법천사	시 정	6/20	10,000	실보사	이순옥	6/1	5,000	총지사	이인성	6/2	30,000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세계여성불자대회 참관기 제12회 세계여성불자대회 태국 방콕에서 열려

‘해탈로 이끌다’의 주제로 전 세계 60여 명 활발한 토론

▲ 김종인 연구원의 발표를 듣고있는 각국대표

지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세계여성불자대회’가 개최 되었다. 1987년 인도 보드가캬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약 45개국 2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광범위한 국제적인 네트웍을 형성하고, 여성불자들의 권익을 보호 및 성차별 철폐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단체다. 또한 국제조직 뿐 아니라 지역별로도 학회와 토론,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회는 매 2년마다 개최되는데, 불교계의 국제행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속적으로 열린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행사가 다수 있지만, 상당수는 지역에 국한된 의례적인 행사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계여성불자대회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되는 보기 드문 행사이다. 한국 역시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적극적인 참가국 가운데 하나이다. 2004년에는 제8차 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었으며, 많은 비구니 스님들과 일반 재가 여성 불자들이 참가한다. 특히 비구니 스님들은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비구니 승단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불교 총지종 화령 중앙교육원장과 법장원 김종인(불명: 보정)연구원이 참석하여, 학술대회 주제발표와 행사에 동참 하였다.

▲ 대회장인 크리스티 장과 태국공주

이번 12회 세계여성불자대회는 ‘해탈로 이끌다’라는 주제로, 태국의 한 여성재가불자가 세운 방콕의 사띠라 담마새탄 수행 센터에서 진행되었다. 1000여 명의 참가자들로 성황을 이룬 개회식 때는 태국 왕실의 공주가 참석, 현지 매스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또 백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진행을 담당하고, 행사장 외부에도 대형 스크린을 배치하여, 실시간으로 현장의 상황을 볼 수 있었다. 공원으로 꾸며진 수행 센터 곳곳에 음식과 음료수를 비치해두었고, 휴식 시간에는 명상 음악을 트는 등 세심한 것 까지 준비한 주최 측의 배려에 놀랐다. 대회 자체가 하나의 큰 축제처럼 진행되어 참가자들 모두가 즐겁고 편안한 일정이었다.

이번 대회 심포지엄에서는 ‘해탈로 이끌다’라는 대주제 아래 ‘세계의 여성불자들’, ‘여성불자의 리더쉽’, ‘불교사회의 변혁을 위한 새로운 방향’ 등의 소주제별로 60명의 발표자들의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대회 둘째 날 총지종 법장원 보정 김종인 연구원은 〈재가여성불자: 한국불교계의 절대다수, 가장 소외된 존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김종인 연구원은 주제발표는 한국 불교 내에서 여성 불자들의 지위와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였다. 한국 불교 신도의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사찰의 신도회 조직이나 불교사회단체에서의 역할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여성불자 스스로가 차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 하다는 사실을 지적,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세계여성불자대회는 여성 불자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대회이지만, 그 동안 주로 비구니 스님들의 지위 향상과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재가여성불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실정 있었다. 이번 주제 발표는 세계여성불자대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새로운 시도였다. 특히 세계여성불자대회의 초대 회장인 텐진 팔모 스님 과 한국비구니협회장 명성스님 등으로부터 많은 질문과 호평을 받았다. 이번 주제는 불교 총지종이 재가불교종단일 뿐 아니라 ‘국제재가불교지도자’ 대회를 개최한 경험을 통해서 재가여성불자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대회 넷째 날에는 워크샵에서는 그동안 불교 총지종이 개최해 온 ‘국제재가불교지도자’ 대회를 소개했다. 지난 1회부터 4회 까지의 사진 자료를 통해 주제와 대회의 특징을 소개해 각국의 참가자들로부터 지대한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특히 화령 중앙교육원장과 김종인 연구원은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에 두 번이나 참가한 경험이 있는 북경대학 석좌교수인 진 리브스 교수와 중국, 대만, 미얀마 등의 재가불교지도자 등과 함께 올해 개최 예정인 ‘국제재가불교지도자’ 대회의 일정과 진행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콕 세계여성불자대회 참가를 통해 국제불교계의 흐름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과 ‘국제재가불교지도자’ 대회를 통해 높아진 불교 총지종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아울러 방콕 대회의 회장으로 바쁜 일정으로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는 못한 크리스티 장 외 대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정리 : 배공주 교무)

▲ 각국 여성대표들

“샤카디타” · 석가의 딸들 인종과 국경을 넘을 대화합의 장

▲ 샤카디타 대표임원들

조상영식과 선망부모의 왕생성불을 서원합니다

영식천도 영험도량 “불교 총지종 수인사”
조상과 선망부모의 영위(靈位)를 수인사에 모십시오!

자손들의 재난소멸과 일체 서원성취를 위하여 생전(生前)에 본인의 명패를 득락전에 미리 봉안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고통의 사바세계를 떠나 즐거움이 가득찬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전당이 득락전입니다.
득락전에 조상 · 선망부모의 영위를 모시고 왕생성불을 발원하는 천도재 및 기제 불공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불교 총지종 수인사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0-1 (전화:054-247-7613 , FAX: 054-247-7615)

주교 지 공 정사 • 지회심 전수 합장

불교의 선정 ④

선정의 목적은 지혜를 개발하는 것

갑작스러운 깨달음은 없다. 단계를 밟아나가야

화 령
(중앙교육원장)

어떤 단계의 선정이든 높은 단계의 선정에 곧바로 들어간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선정의 가장 낮은 단계인 욕계정을 거치는 시간이 극히 짧기는 하겠지만 형식상으로는 마음이 집중되기까지에는 욕계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제이선 내지 제사선, 그리고 그 윗 단계인 사무색정에 들어가기 전의 욕계정을 특히 근분정(近分定)이라고 한다. 미지정이든 근분정이든 모두 욕계정에 속하지만 이러한 예비정은 그 직후에 일어나는 근본정과 유사한 상태라고 한다.

예를 들면, 초선의 예비정인 미지정은 초선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기쁨과 육체적인 안락함이 있고, 제삼선의 근분정은 제삼선과 마찬가지로 고와 낙을 버린 편안함이 있으며, 제사선과 그 위의 무색정의 근분정은 그 근본정과 마찬가지로 불고불락의 사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구분은 부파불교에서 세밀하게 나누어 놓은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단계의 선정에 이르든지 반드시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는 욕계정의 상태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비록 불완전한 선정인 욕계정이라도 반복하여 수련하면 더 높은 단계의 선정에 쉽게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선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욕계정이다. 즉, 욕계정에서 색계초선으로, 그리고 색계초선에서 다시 제이선으로, 제이선에서 다시 제삼선으로 이렇게 점차 단계적으로 경지를 높여가는 것이 불교의 수행법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부해야

그렇기 때문에 선정의 올바른 방법도 모르면서 화두 하나 들고 뭔가 단박에 깨쳐보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주위에 참선한다는 사람은 많아도 제대로 지혜가 뚫린 사람이 드문 것은 아마 선정의 방법이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법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불교 본래의 선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중국에서 전해진 여러 가지 비정통적인 참선방법에 매달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물론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여러 가지 참선방법이 전혀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라, 근본경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방법들과 비교해 볼 때 중국 선종의 참선 방법이 너무 비약적인 면이 있고, 또 비효율적이며 대중적이지 못한 면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정의 종류와 단계에 대해 공부하고 선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깨달음을 열어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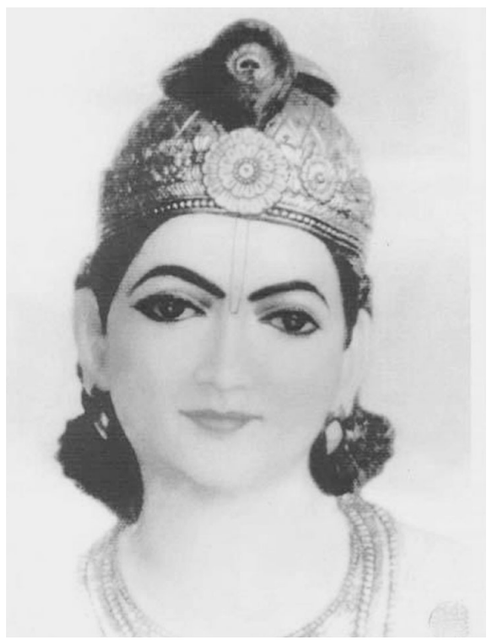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욕계정을 지나 색계정에 이르고 나서도 선정의 단계로는 더 이상의 것이 있다. 즉, 마음을 고요히 멈추게 하는 지의 작용과 고요한 마음으로 관찰하는 관의 작용이 균형을 이루는 색계사선에서 더 나아가 적정심(寂靜心)의 더욱 깊은 경지를 바란다면 무색계정에 이르게 된다.

무색계정은 무념무상의 지의 작용에 치우친 선정이다. 무색계라는 것은 색, 즉 물질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서 이 경지에서는 호흡만이 아니고 자기의 육체나 외계의 존재까지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경지이다. 이것이 더욱 진전되어 물심의 일체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게 되는 무념무상이 상태가 된다. 이러한 무색계의 선정의 경지에도 그 깊이에 다라 네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 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의 사무색정(四無色定)이 이것이다.

먼저 공무변처정에 대해서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두루 색과 상(相)을 초월하고 유대상(有對想)을 멸하여 없애며, 여러 가지 상(想)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허공은 무변하다고 하는 공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공무변처정에서 색과 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색, 즉, 육체와 물질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대상을 멸한다는 것은 대립하여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없앤다는 뜻이다. 색계정에서는 감각적인 욕구로서의 욕은 없지만, 육체나 물질 등에 대한 의식과 생각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무색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육체나 물질에 대한 생각과 의식을 완전히 초월하게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16세 때 초상화 사진.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선정에서 깨어나면 곧 생로병사의 괴로움과 직면하므로

무색계정은 지(止)에 치우친 선정

사무색계정의 최초에 해당하는 공무변처정은 허공, 즉, 공간은 무한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것을 대상으로 삼고 정신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때에 없어지는 것이 유대상과 여러 가지의 상이라고 했다. 유대상이라는 것은 오관의 대상으로서의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 등의 오경에 대한 상념이다. 여러 가지 상이라는 것은 욕계심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선악 등에 대한 생각이다. 즉, 무색계의 정에 들어가게 되면 물질만이 아니고 물질에 대한 생각과 그 이외의 선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조차도 생기지 않게 된다. 이것이 무색계정의 첫째 경지인 공무변처정이다.

다음으로 식무변처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다.

두루 공무변처를 초월하여 식은 무변하다고 하는 식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식무변처정은 제일단계의 공무변처정에서 공은 무변하다는 외적 허공에 대한 생각을 초월하여 허공을 생각하고 있는 식 그 자체도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무념무상의 상태로 가져가려는 것이다.

세 번째의 무소유처정에 대해서는 두루 식무변처를 초월하여 어떠한 것도 없다고 하는 무소유처를 구족하여 머문다고 하고 있다. 식무변처정의 식이 무변하다는 생각조차도 초월하여 어떠한 것도 없다, 공이다 라고 생각하여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향하게 하지 않는 무념무상의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무소유처정이다.

무색계정의 마지막 단계인 비상비비상처에 대해서는 두루 무소유처정을 초월하여 무소유라고 하는 생각도 없앤 비상비비상처를 구족하여 머문다고 하고 있다. 무소유처정에서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버리고 최종적으로 무념무상의 상태로 되는 것이 이 비상비비상처이다. 그러나 이것은 죽은 자와 같이 완전히 정신작용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생각이 있는 것과도 같고 없는 것과도 같아서 극히 미세한 상념의 상태에 있는 선정이다. 이것이 무색계 최고의 경지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알라라 카라마와 웃다카 라마풋드라에게서 무색계정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무소유처정과 비상비비상처를 배우고 금방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마음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은 지혜의 개발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곁을 떠나셨다.

선정에 들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상태에 머물 수 있지만 선정에서 깨어나면 곧 생로병사의 괴로움과 직면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정은 인간의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던 것이다.

총지동의보감

여름철 임산부 건강관리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이제 장마와 무더위가 찾아오는 계절인 여름입니다. 여름은 어린이와 노인들에게는 더위와 이를 피하기 위해 과도한 냉방이나 차고냉한 음식 등의 섭취로 쉽게 건강을 상할 수 있는 계절이며 일반인들처럼 쉽게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임산부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계절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기전에 나타나는 장마철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가 빠른 임산부들에게는 일조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무기력함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움직임이 적어지게 되면서 체중의 증가과 신체리듬이 깨어지게 되는 등 심할 경우 태아의 발육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체리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식사와 수면, 배설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고 하루 20-30분정도의 가벼운 유산소운동이나 스트레칭 등으로 혈액순환을 도와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더위가 심해지는 여름에 임산부들이 제일 주의해야할 부분은 수분이 부족해지는 탈수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성들의 경우라면 햇볕이 강한 낮동안의 무리한 야외활동은 줄이시고 가능한 수시로 수분을 자주 보충해주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옷의 경우도 타이트한 것보다는 통풍이 잘되고 체온조절에 유리한 면소재가 좋습니다.

참고로 여름철에는 외부의 온도는 올라가지만 신체내부 온도는 낮아지게 되므로 찬음식이나 찬물, 냉장상태의 찬 과일 등을 과하게 먹게 될 경우 설사와 복통 등을 유발하거나 심할 경우 태기를 불안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너무 차지 않게 실온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주의할 부분은 탈수

수시로 수분보충과 수면 취해야

제철과일을 많이 드시고 수분보충에 도움이 되는 차로는 오미자차와 매실차, 생강차 등이 좋습니다.

특히 매실과 생강차의 경우 임신중 나타날 수 있는 감기와 위장관 질환(설사와 복통) 등에 복용하면 정장작용과 한기를 몰아내 감기예방과 증상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산모는 임신기간을 통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한 산모의 컨디션과 건강은 그대로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섭취하는 음식과 생활환경등에 좀 더 주의하고 정신적인 피로 등을 느끼지 않도록 마음을 편안히 갖는 것도 힘든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인 될 것입니다.

여성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붕루증, 자궁선근종,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저(입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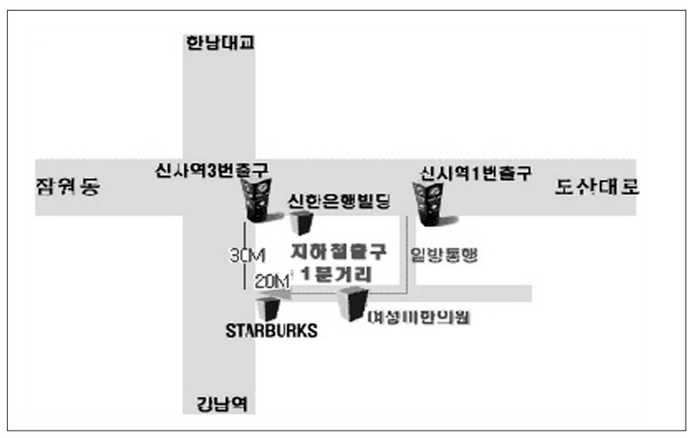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지상설법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회향일 종령 유시문

효 강

〈 종령 〉

'진호국가불공'과 '선망부모 조상영식 천도불공' 회향일을 맞이하며…

7월 15일은 하반기 진호국가불공과 선망부모 조상 영식천도불공을 회향하는 날입니다. 49일의 장기 불공인 '진호국가 불공'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옴훔야호사 수호국계주 진언'을 염송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한 마음과 선망부모 조상님을 위한 마음으로 오로지 청정일념으로 정진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49일 불공의 회향은 교도 보살님들의 깊은 신심과 큰 서원, 그리고 용맹정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향일에 이르는 동안 묵묵히 불공에 전념해주시고 염주와 진언을 놓치 않으신 모든 보살님들과 각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49일 동안, 크고 작은 갈등과 마장과 법문이 다소 있었겠지만, 그것은 모두 내 업장을 소멸하는 수행이며, 나의 그릇을 키우는 법문이요, 마음자리를 더욱 넓히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조님께서는 해방과 6.25동란 이후 어려워진 나라 살림과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살피시고, 오로지 호국불교, 정통밀교를 통한 가르침과 수행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시고, 한국 밀교 종단을 창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종과 동시에 '나라를 위한 불공'을 제정하셨고, 상반기 49일 불공은 2월 19일에서 4월 8일까지, 하반기 49일 불공은 5월 28일에서 7월 15일에 마치는 '진호국가 불공법'을 공포하셨던 것입니다.

상반기 49일 불공의 회향일을 4월 8일로 정한 뜻은, 4월 초팔일을 양력으로 정하였기 때문이며, 하반기 불공의 회향일을 7월 15일로 정한 것은 음력 7월 15일의 우란분절을 양력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종조님께서는 당시의 사회적 시대적 배경에 연유하여 종단의 모든 일정을 양력으로 제정하셨고, 또한 밀교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교주로 삼고 있는바, 이 부처님을 대일여래(大日)라 하는 고로, 대일은 태양에 비유되는 교리적 바탕 위에서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양력을 택하시고 종단의 모든 공식일정을 양력으로 정하셨던 것입니다. 49일 불공을 회향하는 7월 15일을 '우란분절'이라 하는데, 우란분절이란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고자 부처님을 모시고 수많은 대중들과 함께 모여 음식을 마련하여 불공을 올린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종단의 하반기 진호국가 불공은 '나라를 위한 불공'이면서 또한 '선망부모와 조상의 영식을 극락세계로 천도하는 불공'이기도 합니다. 극락왕생의 서원은 곧 영원한 수명과 극락정토를 주재하시는 아미타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불공을 드리는 것이며, 그 서원의 공덕과 성취는 바로 산 목숨을 살려주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매년 종단에서는 49일 불공을 회향하면서 '호국안민 기원 방생 대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우란분절'은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고자 하는 데서 유래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종단의 불교총전 509쪽에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510쪽에는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면 우란분을 지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란분'은 산스크리트어로 '울람바나'라고 합니다. 이를 한문으로 소리나는대로 번역한 것이 '우란분'입니다. 뜻으로 번역하여 도현(倒懸)이라고 하는데, '도'자는 '넘어질 도'자로서, 여기에는 '넘어지다. 거꾸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자는 '매달 현'자로서, 여기에는 '매달다. 달아 매다. 늘어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거꾸로 매달려 고통이 심한 것을 비유한 것으로, 바로 이 생을 떠나 지옥 등의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져서 받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란분'은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아귀도에 떨어져서 괴로움을 받고 있었던 인연에서 유래된 말이고,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고자 부처님과 대중들의 힘을 빌어 극락왕생케 했다는 데서 '우란분절'의 연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란분절이 우리에게 주는 뜻은 단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불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른 의미는 바로 '동참'이라고 하는 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동참'이란 나의 서원을 위해 혼자서 불공하는 것이 아니고, 내 서원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서원을 위해 다같이 서로 불공해준다는 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상시 법회에서 다함께 발원하고 있는 '총지종의 동참불공'은 참으로 의미가 크고, 깊은 것이라 생각되며 소중한 불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참의 공덕은 무량하고 원대합니다. 다같이 동참해서 서로 불공해주고 서원해주는 동체대비의 이 불공법은 어느 종파, 종단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법보시행으로, 오직 우리 총지종에서만 볼 수 있는 대중불공 보시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우란분절의 의미를 빌리지 않더라도 대승불교의 수행정신을 그대로 수용하여 실천하고 있는 불공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총지종의 동참불공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회향일에 올리는 '천도 재불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란분절의 뜻이 우리 총지종의 '49일 불공 회향 천도불공'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망부모와 조상의 영식을 천도하기 위해 나 혼자만이 아닌, 모든 교도가 함께 동참하여 서로 발원하고 불공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가 깊은 불공입니다.

동참 교도의 선망부모와 조상영식의 천도를 다함께 발원하는 불공은 총지종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불공법입니다. 모든 교도가 다함께 동참해서 서로 '왕생극락'을 서원하고 모두가 하나되어 불공하는데, 어찌 그 공덕이 무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우란분절'을 우리 총지종에서는 달리 '해탈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해탈절'이냐고 하면, 바로 이 육신이 명을 다하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열반의 즐거움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고득락(離苦得樂)하는 날이므로 '해탈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 열반'이라 하고, 죽어서 이 육신이 흩어져 고통과 괴로움이 완전히 멸하는 것을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의 왕생극락을 위해 천도재를 올려서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열반락을 얻게 되므로 '해탈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가 깊고, 뜻깊은 해탈절이자 회향불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총지종의 해탈절은 현교에서 말하는 '우란분절' 보다 더욱 뜻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해탈은 곧 일체 고통과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니 총지종의 해탈절은 선망부모와 조상영식의 왕생극락 뿐만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일체 고통이 사라지는 불공이자, '완전한 해탈을 이루는 우란분절'의 참불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49일 불공을 마치며 올리는 '회향불공'은 평소와 달라야 합니다. 마음가짐부터 달라야 하고, 불공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하고 그 정성은 지극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 불효를 일삼고 악업을 지어온 나의 업장을 눈물과 참회로써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형식적인 불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선망부모와 일체 조상영식의 천도를 위하여 수행자인 나의 마음 속에는 뉘우침과 함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회향불공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구, 사원마다 열리는 '호국안민기원 대법회'에 동참하여 정성으로 불공올리는 것이 49일 불공의 원만한 회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9일 불공을 마쳤다고 해서 염주와 진언을 놓아버리거나, 마음에 잠시라도 방심이 들어서는 안됩니다. 회향은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입니다. 앞으로 남은 반 년을 위해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흐트러짐이 없는 생활로 한 해의 살림이 원만하여지도록 정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회향일은 오히려 나머지 반 년을 위해 새로이 시작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점검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시작이 좋은 법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야 새로운 한 해를 더욱 멋지게 맞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49일 불공'의 진정한 회향입니다.

회향일에 동참하신 보살님의 가정마다 복락이 가득하시고, 일체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진리의 여울

세간심(世間心)의 명칭에 대하여

이 때에 다시 금강수가 부처님께 청하여 여쭈었다.

"오직 원컨대 세존이시여! 저 마음에 대하여 말씀에 주옵소서."

이와 같이 사뢰니, 부처님께서 금강수비밀주에게 이르셨다.

"비밀주여, 잘 듣거라. 마음의 모습은 이러하니, 무엇을 무탐심(無貪心)이라 하는가?

마땅히 구하여야 할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진심(瞋心)이라 하는가?

성내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자심(慈心)이라 하는가? 분별없는 애정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치심(癡心)이라 하는가? 지혜롭게 관찰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 닦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의심(疑心)이라 하는가? 항상 정해지지 않는 마음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대일경〉

욕심이 많으면 기쁨을 모른다

부처님께서 사아케타 근처에 계실 때였다. 그때 그 지방 가문 좋은 청년 아나율 난제 금비라 등이 출가하여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왕이 두려워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도적이 두려워서도 아니요 부채를 갚지 못해서도 아니며 가난을 위해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생노병사의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너희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출가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하나이다. 만일 그러한 마음에서 도를 배운다면 어떻게 해야 바른 선법을 닦을 줄 아느냐?"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시고 법의 주인 되시며 법은 세존으로부터 나오나니 저희들을 위해 법을 설해 주옵소서."

"너희들을 위해 말할 것이니 잘 생각하고 그 뜻을 분별하라.

만약 욕심으로 마음이 덮여 가리고 악법에 묶이면 번뇌를 버리는 기쁨과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욕심에 덮힌 마음은 탐욕스럽고 분노하기 쉬워서 마음은 괴롭고 몸은 피로하니라.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도 참아내지 못하고 갈등이 심하게 되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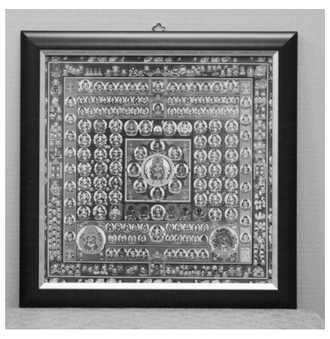
〈중아함경 18〉

진리의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니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태장계 만다라>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자대비이신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성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태장계 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엽원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신등 모두 414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금강계 만다라>

'금강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 만다라는 중앙의 성신회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제천, 현겁천불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구성표
▲ 태경만다라, 금강계만다라 set
33cm×33cm(액자포함) (30,000원)
▲ 가정다라니 46cm×27cm(액자포함) (27,000원)

규제와 편견의 한계를 넘어 선 여성들

빙허각 이씨

조선의 여성 실학자였던 '빙허각 이씨'는 '이창수'와 '유씨 부인'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그녀의 집안은 명망 있는 소론 가문이었고, 외가 역시 실학과 고증학 분야에서 알려진 학자 집안이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학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빙허각'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어린 나이에 많은 책을 읽었다. 특히 시를 많이 읽고 문장력도 뛰어나 시집가기 전부터 여사라고 불리기도 했다. 성격은 철저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했다고 한다.

15세 때 실학자인 '서유본'과 결혼해서 슬하에 4남 7녀를 두었는데 불행하게도 8명이 일찍 죽고 1남2녀만 살아남았다. 남편 '서유본'은 책을 좋아하는 조용한 성품의 사람으로 부부 사이에 금슬도 좋았다고 한다. 남편은 '빙허각'의 학문적 재능을 존중 했다. 부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시를 주고받았던 그에게 '빙허각'은 훌륭한 아내이자 좋은 친구였다.

1806년 남편의 작은아버지 '서형수'가 유배를 당하자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빙허각'도 남편을 따라 거처를 옮겨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때 나이가 48세였다.

조상이 물려 준 땅도 거의 잃고 손수 차 밭을 일구어 가꾸고 살림도 스스로 해야 했다.

하루에 두 끼만 먹어야 할 정도로 가난 했지만 남편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며 집안을 살폈다.

시댁이 실학자의 집안이었고 여러가지 관련 있는 수많은 책들을 볼 수 있었고 일상 생활에 대한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은 '규합총서'를 쓰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은 '빙허각'이 집안의 딸과 며느리들에게 읽혀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글로 쓴 책이다.

이 때가 그의 나이 51세가 되던 해(1809년)였다.

놀라운 것은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여유롭게 쓴 글이 아니라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을 하면서 틈을 내어 책을 썼다는 것이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거나 옷을 짓는 틈틈이 사랑에 나가 책을 읽었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 했다.

규합은 여성들이 거처하는 공간을 의미하고 총서는 백과사전같이 한 질을 이루는 책을 의미한다. 책의 내용은 총 5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술, 장, 초, 김치, 생선, 고기, 나물, 떡, 기름 등 음식과 관련된 부분.

*옷 만들기, 염색, 빨래 법, 그릇, 등잔, 돈의 계보, 머리모양과 화장법, 등 의생활을 포함한 가정생활과 관련된 부분.

*밭 갈기, 식물 기르기, 날씨, 가축 기르기, 양봉, 관련된 부분.

*태교, 육아, 구급법, 민간요법, 등의 경험 처방에 관련된 부분.

*집 방위 및 여러 환난에 대처하는 방법 등과 관련된 부분.

'빙허각'은 '규합총서'를 쓰기 위해 굉장히 많은 양의 책을 보고 그 책들을 인용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책은 농업과 일상생활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을 쓴 '홍만선'의 '산림경제'였다. '규합총서'를 쓸 때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읽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실험도 해 보고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내용들을 덧붙였다. 누구라도 보면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했고 인용한 것과 자신이 새로 더해 넣은 것을 분명하게 밝혀 적었다. 그 내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껴 갔다고 한다. 가정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 관념적 지식이 아니라 조선땅에 살고 있는 여성의 경험에서 출발한 살아있는 지식이었다.

1822년 7월 (순조 22년)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렸다. '빙허각'은 물도 마시지 않고 사당에 가서 기도 했지만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그 후 그는 남편을 잊지 못하고 음식을 끊었으며 일상생활을 접고 19개월 동안 살다가 1924년 초 남편이 내게 2월 3일에 죽는다고 알려줬다는 말을 남기고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빙허각' 이씨는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가정살림에 대한 백과사전을 저술한 여성이다. 한글로 저술하여 남성들에 의해 한문으로 쓰인 방대한 지식을 여성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했다. 다가 올 새로운 여성의 이상적인 모습도 제시해 주었다.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은 '규합총서'를 요리나 바느질 법 등을 적은 책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 책이 알려 질 때 전체 내용 중에 가정 생활에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알려 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남성학자들과 똑 같이 그 본래의 의미대로 다시 재 평가 되어야 한다.

(자료-여성사 전시관)

불교설화 <57>

신비스런 법당 (상)

〈내소사 대웅전〉

변산반도 한 산기슭에 자리한 내소사 법당 대웅전은 보물 제 29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한 개의 포가 모자라고 벽화는 그리다가 중도에서 그만둔 채로 내려오고 있다.

이 대웅전은 조선 인조 11년(1633)에 내소사 조실 청문대사가 증축하였다. 청문대사는 이 법당을 증축한 후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면 이 법당은 어째서 한 개의 포가 모자라며, 벽화는 그리다 말았을까. 청문대사가 내소사로 부임한 지도 어언 3년이 지났다. 퇴락해 가는 대웅보전을 볼 때마다 그는 마음이 아팠다. 어서 반듯하게 법당을 지어 부처님을 편히 모시고 싶었다. 그는 설계를 했고 화주를 뽑아 법당 건립기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금이 조성되고 모든 설계가 끝났다 해도 이를 시공할 만한 목공이 없이는 건립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청문대사는 목수가 오기를 기다렸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 1년, 그러나 목수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청문대사의 거동이었다. 내소사 주지 선우화상은 청문대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젊은 스님이었다. 선우화상은 아무래도 청문대사가 수상했다. 청문대사는 목수를 기다리되 절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꼭 일주문 밖에까지 나와서 기다리다 들어가곤 했다.

"큰 스님, 이젠 들어가시지요. 큰 스님께서 목수를 기다리신지 벌써 한 해가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목수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대웅전은 언제 짓겠습니까? 내일은 좀 미숙하기는 해도 제가 직접 목재를 구해오고 목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들어가십시오."

별로 말이 없던 청문대사가 약간은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허! 젊은 사람이 말이 많구나. 모든 일에는 다 거기에 맞는 때의 용처가 있는 법이니라."

"그리고, 목수를 기다리시려면 절에서 기다리셔도 될 터인데 구태여 여기까지 나오실 건 뭡니까?"

"허허! 말이 많다. 이 사람아, 내가 목수를 기다리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까지 나오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느니."

선우화상은 호기심이 일었다.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요?"

청문대사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부쩍 궁금증이 인 선우화상은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이유를 물었다. 똑같은 질문을 일곱 번이나 했을 때 조실 청문대사는 말했다.

"내가 매일 나오는 것은 백호를 지키기 위해서니라. 목수가 올 때에 해를 당해서는 안 될 테니..."

청문대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크고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갈기는 희어서 그놈이 방금 전에 청문대사가 말한 백호임을 알 수 있었다.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호랑이의 눈빛은 석양의 붉은빛을 받아 더욱 무섭게 느껴졌다. 청문대사는 주장자를 들어 호랑이를 제지하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나치려 했다. 호랑이가 앞발을 들고 청문대사를 향해 으르릉 댔다.

"아직은 안 된다. 나는 할 일이 남아 있다. 내가 우리 내소사 대웅보전을 준공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청문대사는 주장자로 길옆에 우뚝 솟은 소나무 허리를 쳤다.

"딱!"

"어흥!"

호랑이는 주장자 부딪치는 소리에 맞춰 한 번 으르렁대고는 어슬렁거리며 사라졌다. 청문대사는 법당으로 향했다. 청문대사는 법당 뜰에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단주를 꺼내어 굴리고 있었다. 달싹거리는 입술로 보아 염불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한참을 염불삼매에 들어있던 조실 청문대사는 주지 선우화상을 불렀다. 선우가 다가가자 청문대사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내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너는 내일 날이 밝거든 일주문 밖에서 나그네를 기다려라.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들고 올 것이니 받아들고 오너라."

선우화상은 생각했다.

'어떻게 내일 새벽 나그네가 올 것을 미리 알 수 있지? 만약 그렇다면 큰스님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는 것이다. 하여간 시키는 대로 해보자.'

선우화상은 대답했다.

"어떻게 생긴 나그네이며 옷은 어떻게 입었습니까? 그리고 나이는 어느 정도나 먹었는지요?"

"내일 그곳에 나가 보면 알게 되리라."

다음날, 새벽 예불을 끝내고 청문대사가 시킨 대로 일주문밖에 나간 선우화상은 가슴이 철렁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뭔가 늘씬하게 생긴 동물이 일주문 기둥에 옆구리를 대고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다시 그곳을 살펴보니 사람이 누워 있었다. 이미 히끄무레하게 아침이 열리고 있었다.

'참 이상도 하지! 아까는 분명 무슨 동물 같았는데...'

하얀 바지저고리에 수건을 머리에 질근 동여맨 남자 곁으로 가면서 그는 중얼거렸다.

"내 절에 들어와 부처님을 시봉한 지 어언 스무 해 건만 사람을 보고 동물로 착각하여 기절을 하다니, 아직 공부가 덜 익은 게 분명해. 생사를 초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은 6년 고행 끝에 나고 죽음을 해결하셨다는데 나는 그 세 배가 넘는 20여 년을 수행하고도 이 지경이니, 쯧쯧."

선우화상이 가까이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꼈는지 사내가 눈을 떴다. 선우화상이 쭈빗거리며 수인사를 했다.

"어서 오십시오. 소승은 내소사 주지로 있는 선우라고 합니다. 우리 절 조실이신 청문 큰스님에서 마중을 보내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내는 눈만 꿈벅꿈벅 할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선우가 걸망을 달라고 하자 사내는 두 개의 커다란 걸망 가운데 하나를 선뜻 내주었다. 뭐가 들었는지 생각보다 묵직했다. 목수라면 아무래도 연장이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손님은 어디서 오시는 뉘십니까?"

사내는 대답이 없었다.

"이 걸망 속에는 뭐가 들었기에 이리도 무겁습니까? 물론 연장들이겠지요?"

사내는 얼굴만 돌릴 뿐이었다.

"내소사는 처음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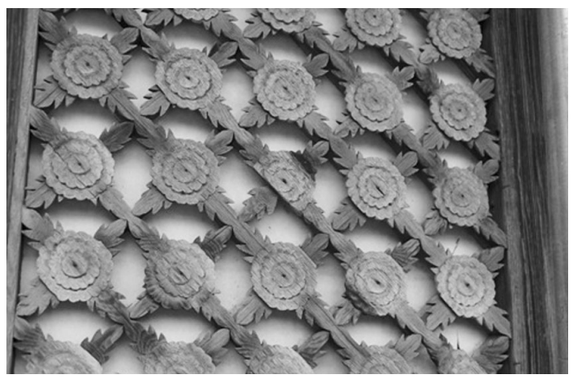
싱긋이 웃을 뿐이었다. 선우화상은 끈질기게 물었다. 청문대사도 결국 무릎을 꿇린 그의 고집이었다.

"큰스님과는 잘 아는 사이십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일주문에서 법당 앞까지 오며 선우화상은 연신 질문을 퍼부었고, 그는 여전히 말 한 마디 없었다. 은근히 약을 올리고 벙어리에 귀머거리가 아니냐고 까지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사내는 언제나 한결같았다. 선우가 약을 올리고 질문을 할 때마다 그가 표정을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귀머거리는 아닌 게 분명했다. 홀로 방에 들어와 생각에 잠긴 선우화상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자신이 미웠다. 승려이기 이전에 그도 사내였다. 더욱이 수행자임에랴. 사내대장부가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녀자만도 못한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냥 처음에 수인사 몇 마디로 끝냈어야 하는데..... 나중에 그를 약 올리고 욕하고 하는 짓은 하지 말았어야 옳은데. 허! 그것 참, 생각할수록 내 자신이 밉네.'

▲ 전북 부안에 위치한 내소사내 대웅보전(보물 제291호)



▲ 내소사의 꽃살문. 문양은 세련함과 오차도 없이 정교하다.

스님은 사내에게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그는 한결같이 가만히 있었다

2011년도 햇보리자 총지종108염주

보리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천은사 보리자이고, 모주는 패다라에 육합상을 조각했으며, 간주로는 천연 백수정 10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패다라란 인도에서 종이 대신 글자를 새기는 데 쓰인 나뭇잎을 말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나뭇잎에 새겨두었으므로 바로 경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 열매로 모주를 만들었기에 부처님 말씀을 늘 수지한 경전과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패다라 모주 108염주로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패다라(貝多羅) : 經은 梵語로 수다라(sutra)라고 하는데 바로 번역하면 선. 관(線. 貫)이 된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패다라** 나무잎에 써서 끈으로 엮었기 때문이다….

구입문의 : 전화 02. 552-1080-3 통리원 또는 총지종 각 사원 주교(총지종 교도에 한하여 1개당 ₩40,000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날

비가 그치면 날은 갠다

박종한 교무

오늘도 비가 내린다.

태풍 '메아리'가 북상중이어서 그 영향권에 있어 비가 내린다.

처음 하루 정도는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거리에 내리는 비를 쳐다본다.

계속되는 비에 '이제 그만 내릴 때도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비는 바삐 움직이는 일상생활을 잠시나마 접고 다른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몇 년 전에 TV에서 나온 프로가 생각난다.

'비가 오면 무엇이 생각나는가?'를 세대별 100명에게 물어 조사한 것을 출연진이 순위별로 알아맞히는 형식이다. 세대별 관계없이 가장 많이 답변한 것은 막걸리와 빈대떡이었다. 아마 비가 내리니까 활동에 제약을 받으므로 쉬겠다는 뜻도 있고 어른들에게 많이들은 이야기 일 것이다.

세대별 1위를 차지한 답변은

10대 놀기도 하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그냥 성가시다.

20대 비가와도 그대와 함께라면 문제없다.

30대 큰애는 칭얼대고 애기는 울고, 빨래는 밀려있고 방은 장난감으로 어지럽게 널려있고 신랑은 늦게 들어오고 결혼은 왜 했을까.

40대 직장걱정, 자녀학비 걱정 잊고 싶다. 첫사랑이 생각난다.

50대 빨래는 걷었나, 창문은 닫고 나왔나, 우산은 어디 놓았더라.

60대 손자가 비를 맞지는 않는지, 논둑 물이 넘치면 자식들한테 큰일인데.

일반인들이 답변해서 수긍이 간다. 어쩌면 인생의 평범하고 공통적인 면을 보는 듯하다. 어렸을 때에는 놀고 20대에 이성을 사귀고, 30대에 결혼생활을 하고, 40대에는 어떻게 하나 쌓여진 고민, 50대는 건망증을 비롯한 건강이 생각나고, 60대는 오로지 자식걱정이다.

아마 비를 통해 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답변에 30~40대가 가장 현실에 치우쳐 생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눈'이 내리면 아이들은 눈싸움을 하고, 20대는 걷고 싶고, 30대 이상은 창가에서 바라보고 싶다고 했다. 내린 후 흰색이 검은 색으로 변해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찻길이 막힌다고 생각한다면 낭만은 졸업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은 삶과 나이에 따라 변해간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기'가 몸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도 표현된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집안과 집밖에 관계없이 잘도 뛰어논다. 쇼파에서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무조건 뛴다. 할머니 왈 "고만 뛰라. 먼지난다. 의자 뿌솨진데이. 자는 누굴 닮아 저리 벨나노" 가만히 있는 엄마, 아빠가 갑자기 서로 새침을 띤다. 집밖에 나간 아이들을 보자. 길을 걸어도 빗물이 고여 있는 위를 지나가거나, 방지턱 위에 올라서 걷거나, 꼭 그냥은 안 간다. '기'가 다리에 있기 때문이다. 엄마와 아빠 중 누굴 닮아 그런 것은 아니니 아이로 인해 싸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치지 않게 보살피고 주의를 주어야 할 것이다.

세월이 지나 성년이 되면 '기'는 가슴에 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으로 생활하고 젊은 혈기로 도전 하는 것이다. 특히 이성을 찾아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심장에 '기'가 있으니 힘도 좋고 박력도 있다. 젊음 그 자체이다.

장년이 되면 '기'는 머리에 있다.

링컨은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다. 공자도 '불혹'이라고 하여 유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만큼 겪었다는 것이다. 일에 대하여 말로서 해결한다. 그동안의 인생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은 주름살이 대변하고 있다. 경험은 존중되어야 하며, 생각의 차이가 다른 세대와 비교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른이라고 대접을 받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기'가 머리를 떠나면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에서 나온 소풍은 끝나게 된다.

비가 내리니까 달리는 기관차가 잠시 간이역에 정차한 느낌. 잠깐 이나마 다른 생각이 날 수 있지만 삶의 인생은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삶은 세대별로 다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같다고 본다. 비가 그치면 날이 개고 해가 뜬다. 그러면 다시 사람들은 비가 내릴 때의 생각은 잊어버리고 또 바쁘게 생활 한다.

어렸을 때 부른 동요가 생각난다.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파란우산 깜장우산 찢어진우산
좁다란 학교길에 우산 세 개가
이마를 마주대고 걸어갑니다.

우리들 이야기

탐 욕

두 나무가 맞닿아 오래 있으면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고
맞닿은 두 나무의 결이 서로 통해 세포가 서로 합쳐
하나가 될 때 연리지(連理枝)라고 합니다.
숲 속의 나무들은 좁은 공간을 나눠 갖고 살아가는데,
자연히 다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묘한 삶을 살아 가는 연리지...
흔히들 부부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닮아간다는 말을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사랑하게 되어 등지 를 틀고 같은 곳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이 웃고 같이 울면서
오랜 시간 미움과 사랑이 교차하면서 서로에게 동화되고 겉모습까지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둘이지만 한 몸처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연리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혜덕화(진언행자 카페에서)

생활상식

◀ 낡은 와이셔츠 활용법

가죽 옷이나 모직 옷을 세탁소에 맡기면, 세탁 후 비닐을 씌워 가져 온다. 그러나 옷을 그 상태로 보관하면 씌운 비닐 때문에 옷감에 통풍이 되지 않아 장기간 보관에 좋지 않고, 특히 장마철에는 아주 좋지 않다. 이럴 때 보관하는 옷은 낡은 와이셔츠를 뒤집어 씌어 놓는다. 잘 다려서 한 구석에 씌어 두면 모양도 그리 흉하지 않고, 옷도 잘 보관 된다.

◀ 요리하던 손이 매우면

음식을 만들고 나면 자극성이 있는 식재료로 인하여 손이 매울 때가 있다. 이럴 때에는 따뜻한 물에 설탕을 넣어 녹인 후 손을 담가 두면 좋다. 그냥 따뜻한 물에만 담그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매운 느낌이 사라진다.

◀ 플라스틱 용기에 밴 김치물 없애기

플라스틱 용기에 김치 물이 배면 잘 씻어도 색깔이 남아 있어 보기도 흉하고 냄새도 난다. 이 때에는그 용기를 잘 씻은 뒤 해가 드는 베란다나 뒤 뜰에 반나절 정도 말리면 깨끗해진다.태양 광선의 표백효능에 놀라게 된다.

이달의 추천도서

절집을 물고 물고기 떠 있네

원철 저 | 뜰

원철스님이 소개하는 불교 건축.

건축은 과학적 측면과 함께 예술적 측면도 있다. 특히 종교 건축은 사상적 의미와 예술적 의미를 풍성하게 담는다. 사찰도 마찬가지다. 『절집을 물고 물고기 떠 있네』는 원철 스님이 불교적 관점에서 전통 건축에 대해 이야기한 책이다. 저자는 200여 컷의 사진을 통해 건축 안에 숨겨진 의미들을 훑으며, 건축물과 더불어 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역사적 인물, 그 속에서 살다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실었다.

도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이진영 편/무비,원철,정목 감수 | 불광출판사

2600여 년이 지나서도 애독되는 부처님의 말씀은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앞이 깜깜해 어디로 나아갈지 모를 때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며 밝은 길로 인도한다.

본문에는 동양은 물론 서양에서도 인기가 있는 『법구경』, 『숫타니파타』와 같은 운문 형식의 초기 경전에서부터 『법화경』, 『금강경』 같이 진중한 대승경전 속에서 뽑아낸 구절들.

그리고 『백유경』처럼 때때로 서양 우화들의 모델이 되기도 한 이야기들까지 모두 50여 권의 경전들에서 185개의 운문과 짧은 이야기들을 모았다.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오강남, 성해영 공저 | 북성재

현대인에게 종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종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모색하고, 우리 종교가 나아갈 길을 찾아보는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가 출간되었다. 『예수는 없다』의 오강남 교수와 소장 종교학자 성해영 교수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책은 다종교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교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불교상식㉘

비로자나 부처님

총지종의 교주(敎主)는 대일여래(大日如來)입니다. 대일여래는 마하비로지나부처님을 의역한 말입니다. '마하'는 크다는 말이며 마하비로자나부처님은 가장 위대한 법신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도 아니요 신도 아닙니다. 우주법계에 항상 계시는 이치의 부처님입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은 우주에 충만하여 없는 곳이 없으며 그 본체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 공(空), 식(識)의 육대입니다. 이 부처님은 과거불이나 석가모니불의 깨달음에 관계없이 원래 시작도 없고 끝이 없이 존재하는 부처님으로 법계에 두루 미치며 항상 머물러 계시는 진여불(眞如佛)입니다.

이 부처님은 세간 중생들이 무명에 가려서,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는 까닭에, 방편으로 한 당신의 몸에서 분화화현 시켜 사바세계에 내 보냈으니 그 부처님이 곧 석가여래입니다.

대구 경북 교구 개천사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총지종 대구 경북 교구 개천사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모집대상 : 모든 불자
◆ 모집시기 : 수 시
◆ 연습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연습장소 : 대구 개천사 합창단실
◆ 연 락 처 : 최 지 형 단 장
053)425-7910
◆ 지 휘 자 : 배 해 근

리차드 기어, 자선사진전 '순례의 길' 홍보차 방한

조계종 자승스님 예방 · 불교 중앙박물관도 관람

▲ 리처드 기어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탁본을 체험한 뒤 서명하고 있다.

영화배우 리차드 기어가 자선 사진전 '순례의 길' 전시 홍보차 6월 21일 부인 캐리 로웰, 아들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하여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했다.

리차드 기어는 환담자리에서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선수행 전통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일본인 스승 사시키 로시 스님을 통해 선수행을 접하면서 불교를 배웠다"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한 뒤 "첫 한국 방문에서 처음 참배한 사찰이 조계사인데, 이곳이 선 종단인 조계종의 총본산이라는 사실이 매우 놀랍고 각별한 인연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자승스님은 리차드 기어가 주연을 맡았던 '하치 이야기'에 불교가 충실하게 담겨져 있었다고 격려했다. 리차드 기어는 이에 "영화 원작을 처음 보았을 때 큰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다. 스님이 강아지 하치에게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의 시작 장면은 마치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법문을 해주시는 장면 같았다"고 화답했다.

환담을 마친 기어는 불교중앙박물관을 찾아 한국불교 문화재를 감상했다. 특히 박물관장 흥선스님에게 한국 불화와 티베트 불화의 차이, 불상의 채색 방식 등에 관해 질문하는 등 불교문화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기어와 가족들에게 탁본 체험 기회도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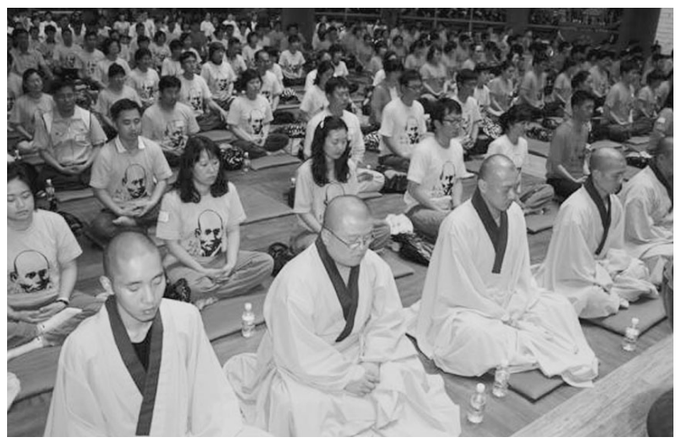
롯데 이대호 선수
사직야구장에 어린이초청

롯데자이언츠를 대표하는 이대호 선수의 초청으로 부산 반송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 50여 명이 프로야구를 관람했다.

부산 원오사(주지 정관 스님)는 6월11일 사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꿈나무 공부방'과 이 지역 주민센터의 방과 후 아카데미인 '든솔학교'의 어린이 및 청소년 50여 명과 함께 부산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의 경기를 응원했다. 어린이들의 야구장 방문은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과의 인연으로 원오사의 '꿈나무 공부방'을 후원해 온 불자 이대호 선수가 초청해 해마다 한 차례 어린이들을 초청해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왔다.

대불청 제30차 불교청년대회

부산 홍법사에서 개최



▲ 대회에 참가한 청년불자들이 철야정진 프로그램에서 참선을 하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대불청) 창립 91주년 기념 '제30차 전국불교청년대회'가 6월 11~12일까지 '청년 만해여! 푸른 파도처럼 일어나라'는 주제로 부산 홍법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 범어사 주지 정여스님 등을 비롯한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과 지부회장, 회원 약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총재 자승스님은 법어에서 "대한불교청년회와 청년 불자들의 화두는 우리 민족문화를 지켜내고 불교의 자존과 존엄을 세워 불교중흥을 맞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당부했다.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 청년 불교가 '한국불교의 허리 역할을 감당하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자성과 쇄신'을 통해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고 모든 청년불자들을 대한불교청년회로 결집시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회는 대회에서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 청년 불자 실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 결사 내용에는 33대원에 따른 수행결사, 청년 호법단 출범, 문화재 지킴이, 연꽃 생협 활성화, 친환경 농산물 이용과 아나바다 운동, 만해 청년봉사단, 무재칠시 운동, 종교평화위원회, 통일 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대불청 회원들은 자긍심을 높이고 소속감을 모으는 계기를 한층 더 높혔다.

진각논문대상 당선작 발표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 정사)은 제13회 진각논문대상 당선작을 발표했다.

제13회 진각논문대상은 진각종교학(1편), 불교일반(4편), 밀교일반(1편) 등 3개 분야에서 6편을 선정했다.

이번에 당선된 논문계획서와 연구자는 진각종교학에서 △콜버그(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을 통해본 응화방편문(應化方便門)-응화방편문으로 조명한 미래 도덕성 교육의 방향(김수향)이며, 불교일반분야에서 △테리가타(Therigata)에서 출가 여성 엿보기(원혜영), 조사선(祖師禪)에서의 신(信)의 의의(意義)와 그 현대적 적용(박규리), 진리인식의 수단으로서 성언량(聖言量)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이규완), 조선초기 일본선승의 조선 수묵화 수용에 관한 연구(지미령), 밀교일반분야에서 △힌두탄트라와 불교 밀교의 동족(同族) 구분을 위한 비밀신호인 Chomma의 개념과 변용-Saiva Trika 문헌 Tantrasadbhava 제18장 비판교정을 중심으로(방정란)이다.

템플스테이 문화축제

템플스테이 10년…67만여명 체험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스님)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돌아보고 마주보고 멀리보자'는 주제로 제 3회 템플스테이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전국 118개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 스님과 운영자, 실무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문화축제는 지난 10년간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인 운영자 스님과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로 10년이 되는 템플스테이는 2002년 월드컵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정부가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한편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템플스테이를 불교계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첫 해 33개 사찰에 2500여 명의 내외국인 참가한 것을 기점으로 2010년까지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인원은 67만여명에 달한다.

불교수목원 설립 토론회 개최

산림청장 수목원설립 긍정적

▲ 토론회에 불교 특성을 살린수목원건립을 강조했다.

불교수목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6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불교수목원 설립을 서원했던 고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대표의 49재를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불교계가 보유하고 있는 사찰림의 효율적인 활용대안으로 불교수목원 설립의 방향과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김용식 교수(영남대 조경학과)는 수목원과 식물원의 역사와 각국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수목원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다. 이영경 교수(동국대 조경학과)는 "불교수목원은 수집과 전시, 연구, 교육, 보전, 휴양이라는 수목원의 기본적 기능과 함께 생명존중의 불교사상과 전통사찰에 내재된 가치를 살려 차별화된 수목원 문화를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하 국립수목원장은 '불교의 정체성을 살린 수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많은 관람객을 유치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불교식물 등의 식재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수목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돈구 산림청장은 6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조계종의 불교수목원 사업에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청장 발언은 이날 오후 환경위원회에서 '불교수목원 설립 토론회'를 여는 만큼 향후 조계종의 수목원 설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충북 단양에 건립될 한마음 수련센터 조감도

천태종 한마음수련센터 기공식

100억원 규모의 센터

천태종(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6월 27일 총본산 구인사 인근인 충북 단양군 남천리에서 '한마음수련센터' 기공식을 봉행했다.

한마음수련센터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2만 6천714평방미터(8천81평)부지에 천태종 50억원, 국비 25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 군비 17억 5000만 원 등 총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주요시설로는 교육동 · 강당동(대강당, 실내체육관, 명상실, 세미나실, 한국문화체험관), 숙소동, 식당동, 관리동, 세탁동 등 6개동을 비롯해 한마음센터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칭 연화길(구인사 둘레길)이 조성된다. 또 남천골과 두령골에는 1 · 2 · 3대가 함께 어울려 생태학습, 템플스테이, 수행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체험학습장이 조성된다.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훈 신 의
성 실
정 직
교목 보리수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교무실 : 051-555-4458 / 행정실 : 051-556-0281 / 교장실 : 051-552-0011

총지사 스승과 교도, 진택불공 동참

이상숙 교도 가정 방문

▲ 진택불공을 준비하고 있는 총지사 스승과 교도

총지사 스승과 교도들이 6월 22일 강화도에 위치한 이상숙 교도 가정을 방문하여 진택불공을 하였다.

총지화 기로스승, 선도원 총지사주교, 록경 정사, 법수연 전수, 덕현 전수와 신정회 이인성 총무를 비롯하여 교도 10여명이 동참했다. 선도원 전수는 "가정의 일체재난 없기를 서원하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바라는 사항을 스승과 같이 불공하는 것이 진택불공의 의의"라고 말했다.

진택불공은 자신의 가정에 스승님을 모시고 다른 교도와 함께 가정의 평안과 소원성취를 올리는 불공이다.

교도의 요청에 의하여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행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많이 있었지만, 현대에 오면서 서원당에서 진택불공을 같이하고 있다.

한려수도의 바다를 바라보는 운천사 교도들

바다처럼 넓고 깊은 신심을 다짐

▲ 사량도 지리망산에 올라선 운천사 교도들.

운천사 도현정사와 교도들이 경남 통영 사량도에 있는 지리망산에 올랐다.

운천사 정기산행팀은 400여미터의 산을 가쁘게 올라 한 눈에 보이는 한려수도를 바라보았다.

불공 수행을 위한 재충전의 계기로 삼고, 교화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문예

즐거운 수학여행

박 준 하

〈동해중학교 2학년 4반〉

친구들과 함께 하는 수학여행이라 무척 재미있을 것 같은 기대에 부풀었다.

첫날 우리들은 선비의 고장 영주시에 있는 소수서원, 선비촌, 소수박물관을 가보았는데 먼 저 소수서원은 조선시대 최초의 사액서원인데 겉과 속이 모두 붉다하여 적송이라 부르며 3백 년에서 길게는 천 년에 가까운 적송나무 수백 그루가 서원 주변을 뒤덮고 있는 학자수림을 볼 수 있었다.

숙수사지 당간지주는 통일 신라시대 작품, 절에서 석조지주 가운데 기둥을 높이 세워 깃발을 걸었던 곳이다.

취한대는 퇴계 이황 선생이 명명한 취한이란 뜻은 푸른 연화산의 산기운과 맑은 죽계의 시원한 물빛에 취하여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긴다는 뜻에서 옛 송취한계의 비취 취자와 차가울 한자에서 따왔다.

학구재와 지락재는 유학생들이 공부하던 기숙사 자리이고 직방재와 일신재는 서원의 원장과 교수의 집무실이다. 전사청은 제사용 그릇 등을 보관해 두는 곳이며, 장서각은 오늘날의 대학 도서관으로 임금이 직접 하사하신 어제 내사본을 비롯 많은 장서를 보관하던 곳이다.

강학당은 유학생들이 모여서 강의를 듣던 곳이고 탁영대와 탁청지는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겸암 류운용 선생이 풍기군수로 재임할 때 연못을 파고 대를 쌓았던 곳이다.

선비촌은 우리 민족의 생활 철학이 담긴 선비정신을 거양하고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재조명하여 윤리, 도덕의 붕괴와 인간성 상실의 사회적 괴리 현상을 해소해 보고자 충효의 현장을 재현하게 된 것이다.

우도불우빈의 공간에서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청빈한 삶을 살았던 선비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수신제가의 공간에서는 자기수양을 위해 노력했던 영주 선비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교육방식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거무구안은 명상과 풍류를 즐기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지 않고 현실의 잘잘못을 비판한 영주 선비의 굳은 기개를 엿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입신양명의 공간에서는 중앙관직에 진출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였던 영주 선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소수박물관에는 영주지역이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의 주거생활 신앙공동체의 주요 대상 지역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자료인 가흥리 바위 그림과 고인돌, 대성지성 문선왕전 좌도, 퇴계 이황선생께서 성학의 개요를 그림으로 설명한 목판, 국보 제78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한
> 2박3일의 수학여행은
>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은 단양 온달관광지를 들렀는데 고구려의 명장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전설을 테마로 온달전시관. 산성. 동굴 등 명승지를 모아놓은 곳이다. 첫날 저녁에는 대명콘도에서 짐을 풀었다.

둘째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인 영릉을 관람하였다.

세종대왕과 소헌왕후릉을 보기 위해서는 정자각을 지나야 하는데 세종 영릉의 정자각 동편으로는 신계 좌우에 동계가 두개 설치되어 있고, 세종 영릉은 하나의 봉분 아래에 왕과 왕비 두 분의 현궁을 마련한 동봉이실의 합장릉이다. 조선왕릉 최초의 합장릉이라고 한다.

조선왕릉의 금천교가 홍살문에 이르기 전에 금천을 건널 수 있도록 조영된 것과 달리 효종 영릉의 금천교는 참도 중간에 조성되어 있다.

효종 영릉은 하나의 산줄기에 상하로 봉분을 배치한 동원상하릉의 양식으로 조성되어 있고 위쪽에는 효종릉이, 아래쪽에는 인선왕후릉이 조성되어 있다.

효종 영릉의 재실은 대부분의 조선왕릉 재실이 산실되거나 원형을 간직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 옛 모습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여주에 있는 명성황후 기념관도 들러보았는데 명성황후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주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후손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되었다고 한다.

전시실에는 명성황후의 친필과 서가집, 고종의 영정 등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을 전시한다. 지금까지 명성황후에 대해 사치가 심하고 시아버지인 대원군과의 전쟁만을 일삼는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전해진 이유는 조선 근대사를 쓴 사람이 일본인이었으며 철저하게 역사를 왜곡한데서 비롯하였다.

일본은 명성황후의 반대파 세력이나 친일파들로 하여금 중상모략토록 하였고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비하시켜 왜곡했다고 한다.

명성황후는 어려서부터 글읽기를 좋아하고 성격이 강직하였으며 옳고 그른 것을 뚜렷이 밝히는 분별성과 행동에 과단성이 있었고 명성황후의 필적은 힘이 있고 당당하여 국모로서의 위엄을 느낄 수 있었다. 명성황후기념관을 나와 우리는 점심을 먹은 후 에버랜드에 갔다가 캐빈 호스텔에서 둘째날을 보내었다.

셋째날 카이스트 도서관과 학교를 둘러보았다.

카이스트 도서관은 1971년 한국과학원 도서실로 출발하여 1990년 3월 현대식 건물을 준공하여 현재의 도서관으로 개관하였으며 현재 과학기술분야의 도서와 학술저널 등을 보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학여행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2박 3일 동안 함께한 시간이라 너무 재미있었고 짧은 일정이 아쉬웠다.

학창 시절의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중학교 2학년 때의 수학여행,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바라밀지역아동센터

바라밀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을 통합적으로 보호하여 질 높은 복지와 교육의 장으로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아동,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일반가정

◉프로그램

- 보호프로그램 : 방임아동보호, 생활지도, 위생지도, 급식지도
- 교육프로그램 : 학습(국어, 영어, 수학, 독서지도, 기초학습지도)
- 문화프로그램 : 캠프활동, 현장학습 및 문화 활동(영화, 연극, 뮤지컬)
- 복지프로그램 :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 지역자원연계 : 결연후원, 지역 내 인적 · 물적 지원연결

◉따뜻한 후원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학습지원비 및 문화활동(견학 및 캠프)을 위한 후원을 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바라밀지역아동센터의 후원자가 되시면 후원금에 대한 세금감면 및 연말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 기업은행 094-059285-04-046 예금주 : 바라밀지역아동센타
- 후원문의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김수경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2동 8-8 정각사 내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전화 : 051)552-0705

팩스 : 051)552-0704

풍경소리

행복

지위가 높고 돈 많은 것이 곧 행복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대통령 부부는 그 높은 지위와 '3천 켤레의 구두'로 대표되는 호사의 극치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행복이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빼앗을 수도
뇌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마음속에만 뿌리내리는,
그리하여 누구나 스스로 싹 틔워 가꿀 수 있는 꽃씨 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꽃씨가 들어있습니다. 꽃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강호형 / 수필가

아무것도 감추고 있지 않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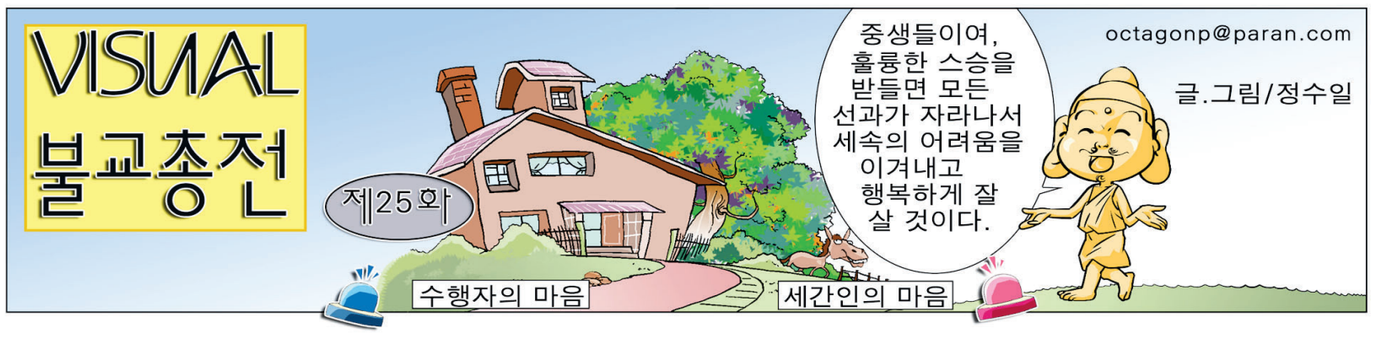
송나라의 황산곡 시인은 참선을 마친 뒤
옆에 계신 조심(祖心)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논어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감추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선(禪)과 같지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산책이나 할까요?"
두 사람은 물푸레꽃이 활짝 피어있는 산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향기가 어떻습니까? 좋지요?"
선사가 물었습니다.
"예, 좋군요."
"거 보시오. 아무것도 감추고 있지 않지요?"

맹난자 / 수필가

이달의 사진

"무 궁 화"

한국불교사진협회 경남지부 김인규 지부장 사진제공



내용참조: "불교총전" 156P 참조

전남영광 특별한 굴비의 맛 청수굴비

영광굴비의 유래

굴비(屈非)? 물고기 이름치고는 참 독특한 이름이죠.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데요.
고려 16대 예종 때 이자겸은 그의 딸 순덕을 비(妃)로 들여서
그 소생인 인종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지요.
또한, 인종에게도 셋째딸과 넷째딸을 시집보내, 중복되는 인척관계를 맺고 이를 업고 권세를 독차지 하며 은근히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 뒤 최사전이 이자겸 일당인 척준경을 매수하여 체포한 후, 영광 법성포로 유배시켰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 지역 특산품인 굴비를 먹게 되었고,
마침내 왕에게 칠산바다에서 잡은 조기를 소금에 절여서 진상하면서, 결코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아부가 아니고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굴비라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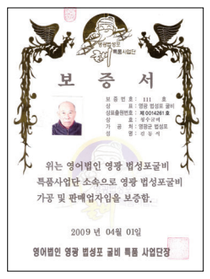
계좌번호 (예금주 : 김장호)
농 협 : 643045-52-114021
광주은행 : 721-121-012900

제품종류

청수 1호 1.3kg / 20마리 / 12,000원
청수 2호 1.6kg / 20마리 / 25,000원
청수 3호 1.8kg / 20마리 / 35,000원
청수 4호 2.0kg / 20마리 / 60,000원
청수 5호 2.2kg / 20마리 / 80,000원
청수 6호 2.4kg / 20마리 / 100,000원
청수11호 1.2kg / 10마리(大) / 60,000원
청수12호 1.3kg / 10마리(大) / 80,000원
청수13호 1.4kg / 10마리(大) / 100,000원
청수14호 1.5kg / 10마리(大) / 150,000원
청수15호 1.7kg / 10마리(大) / 200,000원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두드룸 이상 주문 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청수4호부터 청수15호 까지는 저희가 택배 부담합니다.

• 제품설명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 이상 간수가 빠진 천일염을 사용하여 염장하여 엮어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 법성포 해풍에 말린 후 가장 맛있는 상태에서 냉동시킨 제품입니다.
습도가 5% 이하로 낮아지는 낮에는 해풍으로 건조되고 습도가 95% 이상 올라가는 밤에는 참조기 속속들이 들어있는 수분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 육질이 숙성되는 영광굴비는 칠산바다에 접한 법성포의 기후적 여건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제품에 물기가 흐르는 것은 급속 냉동시킨 제품이 배송시 조금 녹아서 묻어 있는 것입니다.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보관방법
서늘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걸어두면 변질되지 않지만 오래두면 배에서 기름기가 배어나와 맛이 변하므로 가급적 녹지 않은 상태에서 끈을 제거하고 랩으로 2~4마리씩 사서 냉동 보관하다가 1봉씩 꺼내드시면 변질되지 않으며 본래의 맛이 오래도록 유지 됩니다.

• 요리방법
생선 굽는 그릴에 중간불에 서서히 구워야 제 맛이 납니다.
갖은 양념을 바른 후 찌거나, 매운탕을 하셔도 맛있습니다.

영광법성포 굴비 특품사업단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564-4
사업자 등록 번호 : 410-97-06370 · 대표자 : 김동식
상담 및 문의 TEL : 061-356-2466 FAX : 061-356-2468 H P : 010-5325-8824

※ 제조원 청수굴비는 영어법인 영광굴비 특품사업단 회원업체입니다.
신선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포장상태는 조금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해탈절(우란분절)특집

명부시왕(冥府十王)의 명칭

목련존자가 육신통을 얻어서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 도안(道眼)으로 세간을 살펴보니, 그의 모친이 아귀 중에 나서 음식구경은 고사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피골이 상접하여 그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다. 목련이 슬퍼서 곧 발우에 밥을 담아서 모친에게 드렸는데, 그 어머니는 밥을 보자 달려들었으나, 밥이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재가 되어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목련이 크게 통곡하고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모친이 죄가 깊어서 네 한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다. 시방 여러 승(僧)의 힘을 빌려야만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목련아, 내가 이제 너를 위해 구제하는 법을 말해주리라. 7월 15일에 과거 7세 부모와 현세 부모를 위하여 밥과 맛좋은 백미 오과를 분(盆)에 담아서 시방 대덕승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소원을 말하라." (불교총전 - 우란분경)

하반기 49일 불공이 마치는 7월 15일 우란분절(伯仲)은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고통 받는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과 스승에게 공양을 올린 것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총지종은 하반기 49일 동안 조상영식과 선망부모의 왕생성불을 서원하였으며, 진호국가 염송을 하였습니다. 영가와 관련 있고 저승세계를 표현한 명부전은 고통 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심의 지장보살이 주존입니다. 또한 사후(死後)세계에서 인간들의 죄의 경중을 가리는 열 분의 심판대왕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부시왕 이라고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염라대왕도 그 중 한분입니다. 중국의 도교논리와 우리나라의 민속이 불교에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부전의 소의경전인 시왕경(十王經)에 나오는 시왕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집자 주〉

저승의 열두대문을 들어서면 7·7일과 백일, 1주년, 3주년에 걸쳐 모두 10회에 걸친 조사와 심판을 이른바 시왕(十王)에게서 받고 죄가 있으면 시왕이 다스리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며, 심판의 결과에 따라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명부전의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1,3,5,7,9 시왕이 위치하며 오른쪽에는 2,4,6,8,10 시왕이 위치한다. 시왕의 명칭과 관장하는 지옥은 다음과 같다.

①진광대왕(秦廣大王)의 도산지옥(刀山地獄) : 변화의 신은 부동명왕(不動明王)

죽은지 7일후의 첫 번째 심판을 맡는다. 이곳에 도착하면 생전에 지은 살생죄를 심판한다. 시왕은 죽은 이의 생전 기록을 읽거나 판결을 낭독하는 판관과 사녹 등의 관리를 좌우에 거느리고 있으며, 용맹스러운 신장들이 명부전을 수호하고 있다. 살생을 많이 한 영혼은 도산지옥의 고통을 7일 동안 겪으며 남에게 저질렀던 죄의 값을 자신이 다시 받는다.

②초강대왕(初江大王)의 화탕지옥(火蕩地玉) : 변화의 신은 석가여래(釋迦如來)

초강대왕은 십왕 중의 두 번째 왕으로, 초강청에 있으면서 죽은 영혼이 강을 건너는 일을 관장한다. 죽은 이가 14일이 되는 날에 이곳에 도착하면 생전에 남의 재산을 빼앗은 투도죄를 심판한다. 이 강에는 '삼도하'라는 세 곳의 나루터가 있는 데 죄를 사면 받은 영혼은 중앙의 금은 칠보로 된 다리를 건너며, 죄가 가벼운 영혼은 상류의 물이 얕은 나루터를 건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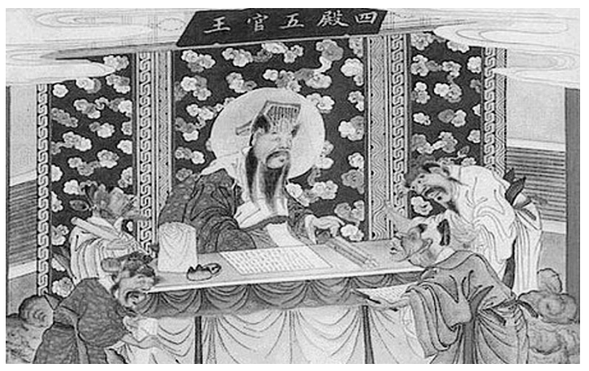
③송제대왕(宋帝大王)의 한빙지옥(寒氷地獄) : 변화의 신은 문수보살(文殊菩薩)

송제대왕은 십왕 가운데 셋째 왕으로, 죽은 이가 업관이라는 관문으로 거쳐 21일 되는 날 이곳에 도착하면 생전에 쌓은 사음의 죄를 심판한다.

송제왕은 큰 바다의 동남쪽 옥초석 밑의 대지옥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16지옥을 두어 죄의 유형에 따라 나누어 관리한다. 이곳의 대표적인 한빙지옥은 극심한 추위에 몸이 얼어붙는 고통을 끊임없이 겪어야 하는 곳이다.

④오관대왕(五官大王)의 검수지옥(劍樹地獄) : 변화의 신은 보현보살(普賢菩薩)

십왕 중의 넷째 왕으로, 죽은 이가 28일 되는 날 이곳에 도착하면 생전에 말로 지은 악구죄를 심판하는데 죽은 이가 살아 생전에 했던 거짓말이나 욕설의 죄를 업칭이라는 저울로 달아 다스린다. 저울의 추는 매우 큰돌이어서 무거우며, 죄인의 몸은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한 온갖 죄를 저울에 달아보면 돌의 무게가 오히려 새털과 같이 가볍고 죄업의 무게는 더 무겁다고 한다.



⑤염라대왕(閻羅大王)의 발설지옥(拔舌地獄) : 변화의 신은 지장보살(地藏菩薩)

죽은지 35일되는 때의 다섯 번째 심판을 한다. 살아 생전에 행한 행적들이 모두 비치는 업경이라는 거울을 갖고 죄를 심판한다. 거울에 낱낱이 비치는 생전의 모든 행적에 따라, 심사를 하여 부모님과 조상님의 말에 불손하게 대꾸를 한 자, 입으로 일가 화목을 깨뜨린 자, 동네 어른을 박대한 자는 발설지옥으로 간다. 이곳은 죄인을 형틀에 매달고 집게로 입에서 혀를 길게 뽑아 그 위에서 소가 밭을 간다.

⑥변성대왕(變成大王)의 독사지옥(毒蛇地獄) : 변화의 신은 미륵보살(彌勒菩薩)

죽고 나서 42일 되는 날, 여섯 번째의 심판을 맡는다. 이 곳에 도착하면 오관대왕과 염라대왕 앞에서 업칭과 업경대에 의해 죄를 심판 받았으나, 죄가 남아 있거나 아직도 뉘우치지 않는 죄인을 심판한다. 죄 많은 영혼들은 큰돌들이 서로 부딪치는 강바닥을 칠일 동안 헤매며 무한한 고통을 받다가 이곳에 도착하지만, 아직도 저지른 죄를 뉘우치지 않은 영혼은 또다시 독사지옥에 떨어져 끔찍한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다.

⑦태산대왕(太山大王)의 거해지옥(鉅骸地獄) : 변화의 신은 약사여래(藥師如來)

죽은 후 49일째의 심판을 관장한다. 이로서 사십구재(四十九齋)가 끝나는 셈이다. 이 왕은 인간의 수명을 다스리는 염라대왕의 서기로서 그 동안의 행적을 기록하여 다음 생의 운명을 정해 주는 일을 맡는다. 죽은 후 49일이 되는 이날은 다음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다. 이때가 지나야 사면받은 영혼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거해지옥은 아직도 죄 값을 다 치르지 않은 죄인을 묶는다.

⑧평등대왕(平等大王)의 철상지옥(鐵床地獄) : 변화의 신은 관음보살(觀音菩薩)

십왕 중의 여덟 번째 왕으로 죽은 이의 백일이 되는 날을 관장한다. 공평무사하게 선악을 다스린다는 뜻에서 평등왕 또는 평정왕이라고도 한다. 발심인연시왕경에는 밖으로는 분노의 상으로 보이나 안으로는 자비를 머금고, 형벌을 가하는 왕이면서도 교화를 베푸는 왕으로 표현되어 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영혼은 49일째 되는 날에 내세의 운명이 결정되어 윤회환생하기도 한다.

⑨도시대왕(都市大王)의 풍도지옥(風途地獄) : 변화의 신은 세지보살(勢至菩薩)

십왕 중의 아홉 번째 왕으로 저승길에서 죽은 이의 1주기(1년)가 되는 날을 관장한다. 도제왕 또는 도조왕이라고 불리며 죽은 이의 죄업을 최후 심판한다. 죄지은 영혼은 1년 동안의 지옥 길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음을 하소연하며 죄가 아직 남았더라도 오로지 자비로서 용서해 주기를 빌게 된다. 지금이라도 진실로 참회하고 반성하면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⑩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大王)의 흑암지옥(黑闇地獄) : 변화의 신은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

전륜대왕은 열 명의 왕 가운데 마지막 왕으로 저승길에서 죽은 이의 3주기(3년)가 되는 날을 관장한다. 죽은 영혼은 십왕을 거치는 동안 많은 죄를 심판 받았으므로 다시 태어날 곳이 결정되는 장소이다. 죄 많은 영혼들은 흑암지옥의 어둠 속을 3년 동안 헤매면서 고통을 겪은 후 이곳에 도착하여 전륜대왕의 마지막 판결에 따라 육도윤회하게 된다.

진언행자 가족을 찾아서 | 국광사 김상필 교도

불공 수행으로 생활 불교를 실천하는 보살

경주지방에 비가 3일째 내리고 있다. 이맘때면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태풍 '메아리'가 북상 중에 있어 그 여파로 비는 쉼 없이 대지를 적셨다. 경주 국광사 서원당(誓願堂)에 들어선 후 보살님들이 스승님과 함께 자성일 불공을 올리고 있다. 밖에는 비가 내려 쌀쌀 했지만, 서원당(법당)은 따스한 기운과 불공을 드리는 모습에 '꽉찬 열기'를 느꼈다.

계속되는 비로 거리는 사람도 별로 없어 정지된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활기와 생기로 들리는 빗소리마저 운치가 있었다. 서원당은 불공드리는 교도 외에 두 가족이 염송을 하고 있다.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어린이들이 '옴마니반메훔'을 따라하고 있고, 아기가 가끔 움직이고 있어 아기아빠도 염주를 들고 같이 움직였다.

국광사에는 사위를 포함하여 가족을 모두 제도시켜 3대가 서원당에 열심히 나온다고 한다. 그 중심 역할을 하고 가족과 국광사를 위하는 교도가 있다. 국광사 신정회 총무로 활동 중인 김상필(해탈심) 보살님이다.

총지종과 만남. 각자님의 사고로 어려운 시기를 불공으로 극복 해

▲ 총지종과 만남. 그리고 시련

- 보살님 안녕하세요. 총지종과 인연은 언제부터입니까.

"먼 길 오셨습니다. 86,7년도 쯤 되었을 거예요. 우리 절에 다니는 이석연 보살님이 저에게 제도해서 그 때부터 국광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 그 전에는 종교가 있었나요.

"특정 종교는 없었어요. 부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꾸준하게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 큰 사고라면.

"절에 다닌 지 한 2년쯤 되었을 거예요. 각자님이 인도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각자님을 치어서 머리를 다쳤어요. 급히 병원에 옮겨 의사에게 피가 약간 고여 있지만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 국광사 서원당에 모인 김상필 교도 가족.

- 굉장히 놀래고 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

"밤새도록 걱정되어서 불안했지요. 절에 다니고 부처님께 공양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부처님을 원망했어요. 염주도 잡히지 않았어요. 다음날 의사가 각자님 상태가 더 나빠져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심을 가져서 상태가 안 좋게 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느꼈지요."

- 수술은 잘 마쳤어요.

"수술은 했지만 살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겠으니 일주일을 기다려 보자고 해요. 전수님께서 일주일 불공을 해 주셨고 저도 매달렸습니다. 마음이 혼란하고 극도의 불안으로 염주는 들지 못했어요."

- 건강은 어떻게 되었나요.

"일주일 뒤에 한 쪽 눈을 뜨고 의식은 찾았지만, 병원에서는 얼마큼 살지 모르겠다고 본인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요. 저는 전수님께 여쭙고 의논했어요. 그 때부터 일심으로 불공을 하고 부처님께 의지했어요."

- 각자님을 위해서 불공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겠습니다.

"정말 불공을 열심히 했습니다. 부처님께 빌었습니다. 그런데 각자님의 건강에 대하여 시댁에서는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 낫기 위해서는 큰 병원에 옮길 수도 있었겠습니다.

"가족이므로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옮기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꿈속에서 각자님이 다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바닥에는 사방공사 흙무덤 속에 새순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옮기지 말라는 암시처럼 느껴지더군요. 새순은 곧 '희망'이라고 여겼어요."

그 뒤로 보살님은 병원을 옮기려는 생각을 하면 옮기지 말라는 재차 꿈을 꾸었다. 시동생은 형수의 말을 존중해 주었으며, 시숙도 큰 병원에 가면 수술한 상태를 재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보살님은 각자님의 건강에 대하여 끝까지 보필하면서 책임지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여 시댁에 믿음을 주었다.

- 각자님의 건강이 호전 되었겠네요.

"스승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듣고 불공을 지극정성을 하니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각자님의 몸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들까지 나서 각자님을 일으켜 세우는 등 운동하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고마움과 희망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수님은 그것이 곧 불공의 공덕이며, 업이 하나씩 소멸되는 것이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보살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가졌고 실천수행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 했다.)

내가 나서서 제도하기 보다는 나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이 절에 와

▲ 가족과 이웃의 제도.

- 자녀들도 어머니께서 불공하는 것을 보았겠네요.

" 아버지가 아팠지만 아이들이 무탈하게 잘 커주어서 고맙지요. 큰애는 초등학교 때 교회에 나가기도 했지만 1년 뒤에 우리 절에 다니고 둘째와 셋째도 절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절에 다녀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전수님은 뜻하지 않게 아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불공마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녀들이 절에 다니게 된 것은 보살님 스스로 지극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정성을 보이니까 스스로 따라오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법회시간에 어린이와 같이 있던 두 가족이 보살님네 첫째, 둘째라고 했다.)

보살님은 딸만 셋 두었으며, 첫째와 둘째가 시집을 가고 막내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 사위들도 절에 나왔습니다.

"고맙지요. 일 관계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사위 두 사람이 가족과 같이 행동하기를 원하고 자주 나오려고 합니다."

- 다른 사람을 제도 시킨 것은 없나요.

"생각나는 이웃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님이 병원생활을 하니까 생활도 어려워 졌어요.

이웃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족을 볼 때 궁금한 것이 있었나 봐요. 우리 가족이 항상 웃음이 있고 밝았데요. 생활도 어려울 터인데 뭐가 그리 즐거울까 하고요. 그 사람은 제가 불상도 없는 이상한 절에 다닌다고 생각했대요. 절에 나가자고 끌지도 않았어요. 저와 우리 가족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지금은 우리 절에 다니고 있어요."

- 불공의 실천수행이 이웃에게 감명을 주었어요.

"부처님과 스승님께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지키려고 할 뿐입니다."

▲ 스승님(안성 정사, 유가해 전수)과 함께

(전수님은 보살님이 '저 절에 다녀요'라고 말 하지도 않는다. 주위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에 가고 싶게끔 마음을 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행을 한다고 했다. 자기 행이 올바르면 저절로 교화와 제도는 된다.)

월초불공 후 항상 칠정진 불공수행은 나를 가르치고 법을 주어

▲ 불공은 나의 전부.

- 평소의 불공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성일 불공과 월초불공, 새해불공, 상·하반기 불공은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전수님은 보살님이 매일 새벽 5시 50분이면 어김없이 법당에 오시고, 각자님도 10시 10분전에는 항상 법당에 오셔서 불공을 드린다고 했다. 항상 시간은 정확하다고 한다. 더군다나 보살님은 월초불공이 끝나면 항상 칠정진을 하신다고 했다.)

- 월마다 칠정진 수행하는 분들이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말없이, 즐겁게 행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저에게 영양가를 주셨어요. 좋은 것을 받았으니 남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 입니까

"비슷합니다. 손자들이 잘 크고, 가족이 건강하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각자님이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님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있다. 보살님은 국광사 간부로 활동하면서, 절에 궂은일을 다 한다. 아무말 없이 주어진 그대로 행 한다. 말씀하면서 물이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찬찬한 성품을 느낄 수 있었다. 순리대로 행하고 불공을 하면서 증득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보살처럼 보였다.

〈취재 박종한 기자〉

▲ 국광사 교도들과 같이 전남 보성 대원사 차 박물관을 다녀왔다.

우리 사원 소식

개천사내 물레방아 설치

조그만 환경 변화에 교도들 감동

대구 개천사 (주교 우인정사)는 사원내에 물레방아 설치와 연꽃벽 도색으로 교도들이 즐거움을 자아내게 하고 지나가는 행인의 시선을 끌고 있다.

지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환경개선을 위해 1층 주차장 내벽에 부식된 벽을 긁어내고 연꽃 그림을 그렸다.

2층 베란다에는 조그만 연못에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어 교도들의 시선을 잡아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연못은 벽돌과 비닐로 만들었으며, 물레방아는 폐자재를 이용하였고, 물은 지하수를 활용하여 꾸몄다. 물레방아는 운치가 있어 소박함을 담고 있다. 개천사는 향후 교도들이 연못 옆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 조성된 물레방아 정원

▲ 새로 만든 연꽃벽화

부산·경남 교구 정각사에서 버스운행 안전불공

교화활용 및 안전이동에 이용

부산·경남 교구 (교구장 지광정사)는 지난 6월 30일 교도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신행 활동을 위해 대형버스를 구입했다.

부산 정각사(주교 대원 정사)에서 열린 차량 안전불공에서 교도들은 차량불사가 원만히 회향됨과 앞으로 안전 운행을 기원 했다.

그 동안 부산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교계 행사와 교화 활동에 많은 인원이 함께 움직일 수 없었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공에 참석한 교도들은 총지종 버스가 부산 시내를 달리는 모습만으로도 종단 홍보와 위상이 크게 올라 가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교화 활동이 원만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

구입한 차량은 33인승 최신형 버스로, 신나는 신행 활동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